

이중언어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공 수 연(인하대 박사과정)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최근 10년간 한국 사회의 주목할 만한 인구학적 변화는 국제결혼 이주자, 외국인 근로자, 새 터민의 증가로 인한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을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만들었으며, 다문화사회를 위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언어·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전문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현장경험,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거쳐 정체성확립, 역량강화, 다문화인식의 3영역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지원자모집 및 선정의 과정을 거쳐 총 10회기로 진행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수법을 학습하는 영역과 실습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교수법을 학습하는 영역에서는 첫째, 이중언어강사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1회기)과 상호 공존하는 다문화인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인식(10회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둘째, 다문화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은 반편견 교육(2회기)과 문화연결자로서의 공동체인식(10회기)에 대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6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역량강화1(3회기)은 문학을 통한 다문화교육 접근법, 역할놀이를 통한 다문화교육 접근법(역량강화2-4회기), 음률을 통한 다문화교육 접근법(역량강화3-5회기), 다문화교수-학습을 위한 교수법(역량강화4-6, 6-8회기)으로 구성되었다. 9회기에서는 개인별 작성한 수업계획안을 바탕으로 교구를 활용하여 이중언어 모의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제 수업을 위한 모의수업으로 수업지도 경험을 통해 현장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에서 질문지를 통해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8문항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7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습영역에서는 이중언어강사의 취업자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수료한 결혼이주여성들 가운데 자원한 사람에 한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본 프로그램 개발자와 조를 이루어 10회기 동안 교사역할을 담당하였고, 회기별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이중언어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들의 정체성 확립, 역량강화, 다문화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이론과 실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평가한 점에 의의를 둔다. 앞으로 다양한 학계의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경험의 다문화 전문 인력이 양성되기를 기대한다.